

KAI, 전투기 등 방산사업 호조… 매출·영업익 대폭 개선 전망

주요 개발사업들 마무리 단계
KF-21 등 인도·양산 본격화
업계, 매출 40% 이상 증가전망

한국항공우주(KAI)가 주요 기종 인도 확대와 양산 사업 본격화를 계기로 올해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예상 매출은 5조2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0.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 역시 4871억원으로 54.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내 양산 사업이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서며 중장기 외형 성장의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KF-21은 약 10년 6개월에 걸친 개발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초도 양산 물량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시장을 둘러싼 기대감도 이어지



KF-21

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필리핀에서 KF-21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UAE와 체결한 150억달러(약 21조7000억원) 규모의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가 KF-21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필리핀 역시 군 현대화 계획인 ‘호라이즌 3(Horizon 3)’ 단계에 돌입하며 다목적 전투기(MRF) 사업에서 KF-21 20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제기 수출과 함께 후속지원과 성능

개량 등 서비스 사업 확대도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항공기는 40~50년에 달하는 긴 운용 수명을 갖는 만큼, 수출 이후에도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KT-1 기체 수명 연장 사업과 필리핀 FA-50 전투기 성능개량·후속군수지원(PBL) 사업이 추진되며 서비스 부문 매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FA-50 계열은 6개국에 약 150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

으며, KT-1 역시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수주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KAI의 수주잔고는 2021년 이전 18조원 내외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개발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실적에 부담을 주던 변수들은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양산과 인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실적 흐름을 좌우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한편 6개월째 공백 상태인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전후로 신임 대표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사업 발굴과 대외 협력 측면에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의 속도와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시리즈 공개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갤럭시 북6 시리즈(사진)’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압도적인 성능과 휴대성에 더해 사운드와 그래픽,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북6시리즈는 기본 모델인 ‘갤럭시 북6’를 비롯해 ‘갤럭시 북6 프로’와 ‘갤럭시 북6 울트라’ 총 3종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하는 ‘갤럭시 AI 아카데미’ 프로모션과 연계한 신제품 구매 혜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HD현대일렉트릭, 수주목표 대폭 상향… “42억弗 달성”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증가 전망
美 등 시장 확장… 사업 기회 확대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올해 수주와 매출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6일 올해 수주 및 매출 등 영업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HD현대일렉트릭은 2026년 수주 목표를 42억22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매출 목표를 4조35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 목표 대비 각각 10.5%, 11.8% 증가한 수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동화 중심의 친환경·고효율 전환 가속화,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확대 등으로



HD현대일렉트릭 울산 사업장 전경.

/HD현대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서 전력기기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차단기, 회전기, 배전기 등 전 사업 영역 전반에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HD현대일렉트릭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생산 거점 신증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조기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과 미국 변압기 공장 증설을 적기에 완료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법 고도화와 숙련 기술 인력의 사전 양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병행한다. 상반기 본격 가동을 앞둔 청주 배전캠퍼스 역시 자동화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와 고도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장 확장과 사업 다변화 전략도 강화한다. 배전 분야에서는 신제품 라인업 확대와 현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국내외 판매 채널을 다변화한다. 회전기 부문에서는 선박용 축발전기와 대용량 드라이브(VFD), 10MW급 대형전동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안

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HD현대일렉트릭은 이날 미국 내 최대 송전망 운영 전력회사와 765kV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주 금액은 986억원이며 제품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765kV 초고압 변압기는 미국 내 최고 전압 사양으로 고난도 설계·제작 역량과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가 수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도 제한된 소수의 유틸리티 기업만이 운영하는 초고압 ‘기간(backbone)’ 송전망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례로, 향후 관련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엔솔, 200억 규모 ESS 사업 수주

한전 ‘선산·소룡 프로젝트’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하는 계통 안정화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2차 사업 가운데 선산·소룡 프로젝트에 약 200억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삼안엔지니어링과 대명에너지는 모두 ESS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산 프로젝트는 삼안엔지니어링이, 소룡 프로젝트는 대명에너지가 각각 수행한다.

한전 계통안정화 ESS 사업은 ▲송전망 병목 ▲주파수 불안정 ▲출력 변동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전력망 안정화 프로젝트다. 변전소 단위로 고출력 ESS를 구축해 계통의 주파수와 전

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ESS를 활용한 계통 안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2차 계통 안정화 ESS 사업은 총 700억원 규모로, 소룡·논공·나주·선산·신영주 등 5개 변전소에 총 300MW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선산과 소룡 부문이 우선 발주됐으며 각 프로젝트 규모는 선산(경북 구미) 56MW·51MWh, 소룡(전북 군산) 56MW·51MWh로 구성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계통 안정화 ESS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번 2차 사업에서도 연이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SK온·SK이노, VIB 기반 ESS 사업 확대

〈바나돔이온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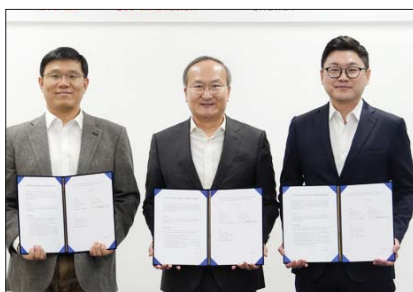
스탠다드에너지 업무협약 체결

SK온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바나돔이온배터리(VIB)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손잡고 ESS 사업 확대에 나선다.

SK온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일 대전광역시 스탠다드에너지 본사에서 VIB ESS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주기 ESS에 적합한 고안전성·고출력 성능의 ESS용 VIB의 성능 고도화와 사업화 협력이 핵심이다. VIB는 물을 주성분으로 한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와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출력 특성이 뛰어나 단주기 ESS에 적합한 배터리로 평가된다.

세 회사는 각자의 핵심 기술 역량을



이석희 SK온 사장(가운데),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왼쪽)과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가 5일 대전 대덕구 스탠다드에너지 본사에서 ‘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결합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SK온은 배터리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스탠다드에너지와 함께 원소재 조달부터 소재·셀·배터리관리시스템(BMS)까지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셀 대면적화 설계 등 차별화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건조계약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1조4993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6일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주 지역 선사사와 20만㎥급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 선박은 길이 294.8m, 너비 48.9m, 높이 26.7m 규모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일반적인 17만4000㎥급 LNG 운반선보다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어 단위당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고효율 축발전기와 LNG 재액화 시스템 등 최신 사양을 탑재해 운항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혜은 기자